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가축방역정책 현황 및 과제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

2021. 4. 7.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목 차



- ☐ **현장간담회 계획** 1
- ☐ **산안마을 소개 및 경과 보고** 3
[유재호 산안마을 대표]
- ☐ **HPAI 관련 가축방역 현황과 과제** 11
[이근행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현황** 17
[이제용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및 대응** 19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화성시 건의, 회의자료** 26
[강진우 화성시 축산과장]

가축방역정책 현황 및 과제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 계획(안)

1. 목 적

- 지난해 10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발생농장 인근 3km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지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음. 특히, 화성 산안마을(친환경축산)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8일간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하면서 ‘살처분 대상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사육 방식’을 무력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가축방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과장을 불러왔음

* 지난 2월 15일,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 대해 실시하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3.28까지 연장)

- 이에 국회의 관련 법 개정 움직임과 가금단체의 요구가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가축방역정책의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2. 개 요

- 일시 : 2021. 4. 7.(수) 14:00 ~ 16:00

- 장소 : 화성시청

- 참석대상

- (내부) 농특위 (정현찬위원장, 박일진 축산소분과장, 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외부) 농식품부, 경기도, 화성시, 산안마을, 관련 전문가

* 농식품부 : 이제용 구제역방역과장 * 경기도 :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 화성시 : 강진우 축산과장 * 산안마을 : 유재호 대표

* 전문가 : 이근행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신건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

김수현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

- 주요내용

- “AI 관련 가축방역 현황과 과제” 발표 및 토론

3.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참석자
현장 간담회 - 화성시청			
14:00~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손영준 팀장)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 박일진 축산소분과장, 손영준 팀장 (농식품부) 이제용 과장 (경기도) 김성식 국장 (화성시) 강진우 과장 (산안마을) 유재호 대표 (전문가) 이근행 소장, 신건준 사무국장, 김수현 공동대표
14:05~14:10	(5')	○ 농특위 위원장 인사말씀 * 이하 박일진 축산소분과장이 진행	
14:10~14:20	(10')	○ 산안마을 농장 예방적 살처분 관련 경과보고(산안마을 유재호 대표)	
14:20~15:10	(50')	○ AI 관련 가축방역 현황과 과제 - (전문가) 이근행 소장 - (농식품부) 이제용 과장 - (경기도) 김성식 국장 - (화성시) 강진우 과장	
15:10~15:50	(40')	○ 질의응답 및 참석자 종합토론 - 간담회 참석자 - (전문가)신건준 사무국장, 김수현 대표	
15:50~16:00	(10')	○ 마무리 말씀(농특위 위원장)	

< 산안마을 소개 및 경과 보고 >

1. 산안마을 소개
2. 양계 연혁
3. 양계법과 방역체계
4. HPAI 관련 상황 일지
5.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입장

1. 산안마을 소개

‘산안’은 한자로 山岸이며, 일본어로 ‘야마기시’라고 읽습니다. 1950년대 일본에서 ‘야마기시 미요조’라는 분이 “누구나 사이좋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야마기시즘’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그의 생각을 실현해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마을을 ‘야마기시즘 실현지’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1984년 화성시 구문천리에서 한국 최초의 야마기시즘 실현지 ‘산안마을’이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한국, 스위스, 브라질, 호주, 태국에 야마기시즘 실현지가 있습니다.

산안마을은 구성원과 생활 체험자들을 포함해 20여명의 식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 구성원들은 양계부, 채소부, 생활부 등에서 야마기시즘 생활을 해보고 있습니다. 양계를 주요 산업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사이좋음, 무소유에 대해 연찬하고, 일상에서 실천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산안마을의 활동으로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낙원촌’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야마기시즘 특별강습연찬회’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화성시 주민들과 함께 환경 운동을 포함한 지역사회 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2. 양계 연혁

1966. : 야마기시식 계사 2칸을 한국 최초로 지어 입식

1984.01.19 : 6가족이 모여 야마기시즘실 생활 실현지(산안마을) 발족

1984.05.09 :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구문천리 산141-1에 농장터 마련
 1984.11. : 계사 2동이 준공되어 퇴비열 육추법으로 2회에 걸쳐 3000수 입식
 1985.03. : 한국 최초로 '유정란'이라는 이름으로 직거래 시작
 1985.11. : 계사 2동 증축
 1986. : 직거래로 활용자 그룹을 만들어가며 공급을 확대
 1988.07 : 계사 6동 증축(합 10동)
 1998.09 : 계사 3동 증축 (합 13동)
 1995.12.21 : 야마기시즈생활경향실험지 영농조합법인 등기
 1997.12. : 계사 5동 증축(합 18동), 생활협동조합에 1호생활재로 납품시작)
 2004.03.10 :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화성시 1호)
 2014.03.06 : 800㎡ 떨어진 평택시 청북면의 양계장에서 HPAI발생 (산안마을 21일 이동제한, 계란 약 42만개 폐기)
 2015.12.18 : 무항생제 인증 받음
 2018.07.13 : 농장 HACCP 인증 취득
 2019.01.24 : 선별포장장 준공, 가동
 2019.06.22 : 동물복지농장 인증 취득
 2019.12.11 : 통합 HACCP 인증 취득
 2020.12.20 : 계사 4동 준공(합 22동),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선진화 사업'으로 방역관리동, 퇴비사, 차량용소독기, 대인소독실 준공.
 2020.12.22 : 1.8km떨어진 양계장에서 HPAI 발생, 살처분 명령 받음
 2021.02.19. : 닭 3만7천수/계란 130만개 살처분 집행.

3. 양계법과 방역체계에 대하여

현대 축산의 흐름이 그렇듯 양계산업도 닭을 하나의 생명으로 다루기보단 알과 고기를 생산해내는 기계장치처럼 다뤄왔다. 닭은 앉거나 서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되고(산란계 케이지 사육), 지나치게 빠르게 비대해지는 살집으로 인해 출하직전엔 서있기조차 버거워지는 삶(육계사육)을 살게 되었다. 결과물인 알과 닭고기는 그 비참한 과정이 모두 가려지고 외면된 채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

반면 산안마을의 양계는 자연과 인위의 조화를 꾀하고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우리의 가치를 담기위한 노력과 연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닭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살아있는동안 그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좋은 맛과 높은 품질에 더 하여 드시는 분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염원이 담긴 알을 생산하는 것이 산안마을이 양계를 하는 이유이

다.

뿐만 아니라 가축감염병에 대한 우 해가 갈수록 올라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역 인프라와 방역 체계 정비에도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해왔다. 이해를 돕고자 산안마을의 양계법과 역사 그리고 방역체계를 소개한다.

○ 양계법

- 평사식의 넓은 공간에서 사육

m²당 4.4마리(동물복지인증 기준 9마리)의 사육 밀도로 닭들이 모래목욕, 파헤치기, 일광욕, 털 고르기, 짹짹기, 헛대오르기 등 종특성행동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 닭들은 그때그때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닭의 스트레스를 주요원인으로 보는 카니발리즘의 발생이 거의 없다. 카니발리즘이 없기 때문에 케이지 양계장에서 필수로 하는 디비킹(부리 자르기)을 할 필요가 없어 닭은 부리를 더욱 예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 개방형 계사와 천창

계사의 앞면과 뒷면이 망으로 되어있고 지붕에는 천창을 달아 공기순환이 항상 이뤄지는 계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호흡기가 많이 퇴화된 가금류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천창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닭들에게 일광욕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또 계절과 날씨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닭들의 건강상태를 유지한다. 계사내부의 공기순환은 물론 햇빛을 고루 쪼이게 하여 바닥의 계분을 항상 마른 상태로 유지 할 수 있게 해준다. 계분이 말라있어 암모니아 가스가 거의 없어 닭들은 계분을 이용하여 수시로 모래목욕을 즐기며 진드기를 떨어트리고 자기관리를 한다.

- 계분을 활용한 순환농법과 매일 먹이는 풀김치(사일리지)

1년 반정도의 닭 사육기간동안 계사 내부에서 잘 건조되고 발효된 계분은 닭이 출하된 이후 퇴비장으로 옮겨져 2차 발효과정을 갖는다. 잘 발효된 계분은 15,000여평의 목초지에 뿌려지며 이 초지에서 길러진 풀은 다시 풀김치로 만들어 닭들에게 매일 급이 된다. 닭에게서 나온 계분이 밭에 뿌려지고, 이것이 양분으로 생산된 풀을 발효시켜 닭에게 미네랄과 미생물이 풍부한 사료를 지급하는 순환농법은 구현하기 힘든 친환경기술이다.

- 개체관리에 가까운 사양관리

성장이 뒤쳐지는 닭, 쫓기는 닭, 병든 닭 등을 쉽게 발견하고 별도 관리를 하기 위하여, 690m²(길이 91m)의 양계장을 25칸으로 나눠 닭을 키우고 있다. 손이 더 많이 가지만, 닭들의 성장의 편차를 줄이고 취약한 닭들을 별도로 모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사육방법이다.

- 환경적응성과 소화기관이 최대로 발달할 수 있는 병아리 육성
 병아리때 소화기 쉽지 않는 먹이를 먹인다. 태어난 첫날부터 현미를 주고 셋째날 부터 생풀을 주어 소화가 쉽지 않는 것을 소화해냄으로서 소화흡수력을 키운다. 일반 닭에 비하여 1.5배에 달하는 장길이를 갖는 건강한 닭으로 성장한다.

○ 방역체계

- 교차오염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사육·유통 체계
- 사육의 모든 과정(백신, 초생추 입식, 계분 반출 등)을 외주 없이 농장 직원들의 기술과 농장내의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한다.
- 사료차의 동선이 농장 내 다른 차량·사람의 이동 동선과 겹치지 않는다.
- 외부의 식용란을 반입하지 않는 자체 식용란수집판매업과 선별포장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3대의 전용 알 운반차량을 보유하여 타 식용란 유통업체와 접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 농장 진입시 이용하는 도로의 동선이 타 농가와 겹치지 않는다.
- 계분 반출은 HPAI의 위험이 없는 7~8월에 농장 소유의 목초지에 하여 계분에 의한 질병 전파 가능성이 낮다.
- 각종 방역 인프라 구축
- 밀폐형 차량소독기와 대인소독실을 설치하여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이 방역 절차를 거친다.
- 방역관리동을 신축하여 농장과 축사내부로 출입하는 사람이 샤워 후 작업복으로 환복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사람에 의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을 낮췄다.
- 각 계사마다 발소독과 환복이 가능한 전실을 설치하여 농장과 축사, 축사와 축사간의 질병 전파 가능성을 낮췄다.
- 이동식 소독이 가능한 SS분무기와 다수의 소독용 분무기 그리고 다수의 열선 발판 소독기를 보유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소독이 가능하다.
- 퇴비장을 신축하여 1년치의 퇴비를 쌓아놓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고, 망을 설치하여 야생 조수류의 계분 접근을 차단하였다.
- 농장입구와 축사입구 등 총 20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출입기록부 방역일지 등을 배치하여 방역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기록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로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
- 각종 인증과 교육을 통한 안전성 검증
- 2019년 통합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의 개입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입증하였다.
- 기존의 사육환경의 변화없이 동물복지 인증 취득하였다.
 - 정기적인 통하여 직원들이 높은 방역의식을 가지고 있다.

4. HPAI 관련 상황 일지

2020년

- 12.22. 10:30 화성 향남읍 상신리 산란계 농장(산안마을에서 1.8Km)에서 폐사 증가로 신고
 11:00 현장 간이진단키트 양성. 정밀검사 시료 채취
 17:40 시험소(본소),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 12.2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
- 12.24 13:30 화성시 축산과 동물방역팀장 방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보호지역 내 농가 조건부 살 처분 명령서 전달 받음
 조건부살처분 명령 중지 청원서를 전달함.
- 12.24. 21:00 농장입구 감시초소 설치(화성시-농림축산식품부 지시)
- 12.25. 10:00 AI검사 샘플 880개 채취(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15:30 화성시 축산과장 방문 - 예방적 살처분 종용. 추후 전화로 강제대 집행 언급.
- 12.27 12:00 시 축산과장- 농림부 강제집행종용했다.
 13:00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 과장(권용국) 방문 - 예고 없이. 농 장 입구 확인.
 화성시청 상주 인물.
 19:00 예방적 살처분 명령 취소 요청 성명서 발표 - 단체 및 시민 6341명 연대서명.
- 12.28 10:00 시 축산과 사료반입 이동승인 재가
 12:00 시 축산과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 12.28. 까지.
 14:30 시 축산과에 가축방역심의회 소집 요청- 거절
 14:00~17:30 사료대란 : 시 이동승인 -> 농림부 농장입구 반입 불허-> 농림부 반입 재가->
 인천 중구청 이동승인 거부(보호지역 진입한 차량은 중구로 돌아올 수 없다. 보호지역 밖 환적장 설치시 가능) -> 화성시 환적장 설치 승인 거부(살처분 대상 농가 이기에 환적장 설치하는 메뉴얼에 없다)-> 타 사료회사 연락했으나 같은 상황 -> 시 환적장(비공식) 설치 후 CJ사료(톤백)반입 승인.
- 12.31 12:00 화성시장 SNS 산안마을 관련 글 게재 : 지속가능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언급.

2021년

- 1.1 20:00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발부. 12.31.까지.
- 1.5 15:00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문의 통화 - ‘음성’판정
- 1.6 13:30 송옥주 의원 방문 - 사안 인지. 농해수위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 하겠다.
- 17:00 행정대집행 계고서(3차) 발부. 1.10까지
- 1.7 14:00 시 축산과장, 일자리경제국장 방문 - 살처분 집행 설득. 도 건의(어떤 형식의 건의 였는지 정확한 공문명 밝히지 않음). “농림부 압력이 강하다. 시간 끌어도 살처분 명령 취하 없다. 축산업 허가 취소 할 수 있다.”
- 1.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사건번호 2021-48(접수번호 2021-186)번
- 1.11 12:00 행정대집행 계고서(4차) 발부. 1.17까지
- 1.13 12:00 화성시로부터 고발조치 당함(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위반) - 추후 확인.
13:00 도의원(김인숙, 김인영-농정해양위 위원장), 도 동물방역과장(최권락) 방문
- 1.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사건번호 2021-28 (접수번호 2021-239)
- 1.18 12:00 이재명 경기도지사 업무회의 “도 차원의 (예방적 살처분)기준안을 만 들어보라”고 지시.
- 1.20 14:00~17:00 화성시민토론회(ZOOM+Youtube streaming): 줌 정원 100+ 유튜브 실시간 접속 약 50명 참여. 시민청원 시작 목표 1500명(달성)
- 1.25 13:30~18:30 경기도 행정심판원 구술심리. 집행정지신청 인용.(살처분 집행 정지신청은 인용되었으나 살처분 행정명령은 유효함으로 일반출 금지 및 방역조치 유지)
- 2.1 경기도 축산산림국 관계자 - 화성시에 예찰지역 전환 및 일반출 방안 전달했다. 시장이 판단할 일이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 2.3 국회방문(이근행, 신건준, 이경목, 김현주, 유재호) - 위성곤, 이원택 의원실 비서관 미팅(대정부질문 질의 포인트 전달),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 미팅(대표발의 준비, 산안마을 문제 해결 촉구)
- 2.4 1인 시위 시작 - 시청2명(정책실장 면담: 시장 답변은 정해짐. 예찰지역 전환할 경우 농림부가 다른 농정관련 예산을 끊는 식으로 압박할 수 있다), 도청3명, 세종시 3명
- 2.5 1인 시위 - 세종시 4명(카라 조현정, 길봄 이소영 합류)
- 2.5 1:30 화성시장 면담(시장, 정책실장, 축산과장, 유재호, 김현주, 김한결, 김현지) 10분 화성시 재량으로 예찰지역 전환 할 수 없다.

- 2.7 16:00 화성시민대책위 회의(강석찬, 박혜정, 이상배, 허민영) -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 출범.
- 2.8 8:30 ~13:00 세종시 1인 시위
10:00 화성시청 앞 기자회견 (비대위 주최)
13:00 SBS 김덕현 기자 촬영 농장 내부
- 2.9 14:00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앞 기자회견(환농연 주최)
16:00 경기도청 미팅(김현지 도지사 비서관, 장 건 도자재단 이사장, 이재
욱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사장, 강경숙, 유재호) : 경기도가 현시점
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는 것이 중요. 예찰지역 전환에 관한 화
성시장 권한에 대해 법률검토 하겠다.)
- 2.10 8:30~14:00 화성시청 1인 시위. 김수현, 박미애 님, 님씨.
11:00~12:00 청와대 기자회견(키라 주최) : 효자동 골목에서 부터 9명만
통과 허용. 기자회견문 청와대 민원실 접수.
- 평택 고잔리(김인순 농가) 기준 최종 살처분(제암농장) 시점 부터 21일 경과일
- 2.15 09:00 청와대 국민 청원 시작 : ‘살생의 광기....’
11:00 농식품부 브리핑 : 2주간 살처분 범위 조정(3Km->1Km이내 동일축
종만 대상으로함), 기존 살처분 명령 농가는 해당 되지 않음.
17:00 서철모 시장 SNS - “가슴이 아프다, 건의 하겠다”, 누구에게 무슨
건의 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국회 농해수위 전 의원,각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부의장 수신 탄원서
송부(이메일, 팩스), 농해수위 전 의원실 전화로 상임위 발언 촉구.
위성곤, 이원택 의원실 위주로 질의 포인트(Q&A 형식)으로 전달.
- 2.16 10:00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의원7인 예방적 살처분 관련 발의(위성곤,
이원택, 이만희, 서남석, 이양수, 윤재갑, 안병길, 김선교)
20:00 SBS 뉴스, KBS경인, MBC 보도
- 위성곤, 이원택 의원실 통해 농식품부 면담 추진. 가능하다는 답변 얻음.
- 2.17 8:30 ~ 15:00 농식품부 앞 대기 : 농식품부는 연락주겠다며 약속 잡기를
회피함. 의원실 쪽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내일 다시 찾아가
기로 함.
20:00 SBS 뉴스보도 : 살처분 집행시 문제 영상 포함.
- 2.18 13:00 ~ 14:00 농식품부 면담(방역정책과 유재형 서기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김영규 사무관, 유재호, 이경묵) : 전달하겠다. 확
인해보겠다. 검토하겠다 로 일관. 산안마을 사안은 법대
로 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입장과 같다.
16:26 화성시청 수신 팩스 송부 : 산안마을 닭과 계란의 생살여탈을 농식
품부, 화성시에 넘긴다.
18:00 시 축산과장, 축산정책 팀장 방문 - 살처분 의사 확인.
- 2.19 7:30 예방적 살처분 집행 시작 - 집행 및 입회 : 살처분업체, 상차반, 시
축산과(2명), 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외 3명), 도 동물보호과(1명), 카라.

- 8:00 ~ 10:00 카라 인스타라이브 - 화성시의 퇴거 요청으로 방송종료.
 14:00 기자회견(구문천1길 81)
 21:00 닭 살처분 완료 약 3만7천수 살처분 업체(천안)으로 이동 후 렌더링 -> 열처리-> 기름+물(정화 후 하수 처리), 고형물(소각) -> 최종 잔존물은 폐기물로(매립?)
 2.21 11:00 도 축산산림 국장, 동물위생과 축산물안전팀 방문 : 보상 및 추후 정리 방안 논의.

5.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입장

산안마을은 ‘나,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를 결성 회지로 한다. ‘모두’에는 사람과 닭 뿐만 아니라 흙, 물, 공기 등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칭한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번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바탕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37년간 양계를 해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의 주도로 자행되는 예방적 살처분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가축은 물론, 죽여야 하는 사람, 사체가 묻히게 되는 땅,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사회의 구성원까지 포함하여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매우 파괴적이고 자학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산안마을은 현재 방역정책에 동의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예방적 살처분을 정당화시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HPAI와 구제역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질병 대응 체계와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온 것을 알고있다. 축산농가들 역시 방역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말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이하 SOP)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500m에서 3km로 확장하였다. 예외조항이 있지만 예외여건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사실상 무용한 조항이다.

가축감염병에 대한 경험과 연구가 축적되고 방역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는데, 제도는 왜 후퇴하였는가.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행정행위는 신속하고 가시적이지만, 그 효과를 증명할 대상물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행위를 완성한다. 지극히 행적편이적이지 않은가. 지속가능한 축산과 건강한 먹거리는 생산자들의 의지와 소비자들의 관심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 농가를 죽이는 지금의 방역제도는 당장에라도 수정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의 방역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HPAI 관련 가축방역 현황과 과제

□ 간담회 의미와 기대

- 2016~17년 겨울 이후 4년 만에 HPAI 감염이 크게 번지고, 대응하여 강화된 가축 방역 행정이 이루어짐
- 대비하고 강화한 가축방역 정책과 집행과정은 '살처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 확산을 방지했다는 방역행정의 평가가 있는가 하면,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과 수급 기반을 약화시키고 가금사육농가들의 생산과 방역실천활동을 저해하였다는 평가와 논란이 있음
- 이에 감염 확산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행정 현장의 긴장이 누그러지기 전인 시기에, 올겨울 HPAI 방역 행정과 현장 농가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함께, 스스로 평가·성찰하고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논의 자리임
- 산안농장을 둘러싼 사회적, 정책적 실천과 행정과정의 경험은 가축방역에서 소중한 사회적·정책적 자산이 되었고,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아쉬움만이 아니라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인만큼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HPAI 발생 및 방역 현황

- HPAI 양성 농장현황 지도



<https://www.mafra.go.kr/FMD-AI2/2179/subview.do>

- 2010년 이래 살처분 현황



- HPAI 발생 현황('20.10.1~'21.4.1. 09:00 기준) : 가금농장 106건, 관상용 2건
(2월에는 19건, 3월에는 충북과 전남에서 5건 발생)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현황 : 232건
- 살처분 농가 현황('20.10.1~'21.3.31. 24:00 기준) (두수단위: 천수)

육용오리		종오리		산란계		육계		종계		토종닭		기타	
호	두수	호	두수	호	두수	호	두수	호	두수	호	두수	호	두수
96	1,849	23	184	184	16,745	98	6,984	39	1,337	30	857	17	1,937

- 올 겨울 총 2,989만 마리의 닭과 오리 살처분
- 산란계의 경우, 전국 산란계 7,385만 마리(2020년 3분기 기준)의 22.7%를 12월 이후 4개월 동안 살처분함
- 방역 살처분으로 양계산업 기반 흔들, 달걀 수급위해 2월까지 4,400만개 수입
- 올 겨울 106건의 가금농장 발생 가운데 산란계 농장 발생은 45건. 살처분한 산란계 농장은 184건. 감염된 농장의 4.1배에 이르는 산란계 농장 닭을 살처분 함
- 발표 자료로는 지역별, 감염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 구분할 수 없음

□ 가축방역 정책과 행정에 대한 의견

○ 문제의식

- 가축방역 정책과 과정은 ①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②생산현장을 어떻게 지도·지원하는가 라는 기준에서 평가, 성찰해야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cf)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질병관리청)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

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cf)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재의 가축방역행정은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 개선점은 없는지 검토 필요

○ 방역 정책 방향과 기준 설정, 조정 등 집행의 합리성

- ‘살처분’은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로 최종적 수단임
- 가축전염병 예방의 목적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축산을 지속하는 것. 정책의 방향은 방역(감염된 바이러스 격리와 제거), 예방(효과성있는 백신 시범사업과 같은 면역 형성지원이나 거리두기와 같이 사전에 감염 확률을 낮추고 확산을 방지), 건강한 축산의 지속(가축사육 환경관리)이 모두 포함됨
- 살처분 강화는 방역행정의 과잉. 2016~17년 HPAI 대유행 사태이후 방역 강화방침에 따라 ‘예방’조치 최종 방역수단인 ‘살처분’으로 일관하는 ‘예방적 살처분’ 강화. 법제도에도 감염 가축의 살처분은 방역조치로 인정되나(필요적 살처분, 기속행위), 예방적 조치로서 살처분은 단서조항으로 ‘질병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선제적 조치이며 방역 재량행위일뿐 ‘예방’으로 취해야할 조치는 아님에도 ‘예방적 살처분’으로 HPAI 발생 이후 1억 마리 이상 살처분
- 고시 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예방적 살처분’ 강화 조항을 담아 살처분을 ‘예방조치’로 시행 강화. 야생조류 모니터조사와 네덜란드 등 외국사례를 들어 보호지역(500m~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는 것은 종합적 판단 근거 미약
- 2주간 살처분 대상 조정 방역대책 발표(2/15) : 야생조류 HPAI 발생 건수가 ‘16/’17년 59건에서 올 겨울 184건으로 212% 늘어나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방역행정을 잘해서 가금농장의 AI 발생이 72%나 줄었다는 진단과 평가를 내리고, 3km 확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근거 설명없이 1km로 조정. 상황 변화 조치인데 소급 적용 안함
- 이미 2014~15년 조류인플루엔자(H5N8) 대유행 사태이후, 국제 공동연구(‘조류인플루엔자 H5N8의 세계적 확산과 야생철새의 역할’)에서는 AI 전파 경로 차단

한계 지적하고 동물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논의가 주효함에도 차단의 최후 수단이 살처분에만 의존

- ‘AI 방역 제도개선 지원 TF’(2017)의 일본 방문보고에서도 사육밀도와 사육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대통령의 ‘바이러스 변종 토착화가 의심되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기존의 관성적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2017.6.8.),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사육환경 개선 지적 등으로 제도, 지침을 개선하였음에도 축산 여건과 환경의 개선 노력은 소홀하며, 권위적 ‘살처분’ 명령 수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필요

○ 가축방역 행정 집행의 현장성, 민주성

- 올 겨울 살처분 방역 현장에서 바라본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책임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권위주의적 권한행사, 독단적 관료행태의 문제로 보여짐
- (예방적) 살처분 조치의 형식적 결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실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지자체에 하달되는 구조와 관행 여전
- 화성 산안마을 사례, 2018년 800m 인근 감염시에도 피해없이 지나고, 선진 방역 체계를 갖추고, 매일 검사가 이루어지고, 정밀검사도 음성, 잠복기도 이미 지났고, 화성시와 경기도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 재검토 의사에도 농식품부는 살처분 명령을 여전히 고수 / 농식품부 - 경기도 - 화성시 역할과 정책결정, 행정집행 모습
- 행정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예외없는 살처분’을 고집하고 있으나, 천안 농장의 살처분 범위 조정, 용인 종계농장의 지방심의회 건의에 대한 형식적 대응 등 행정집행 과정의 과두화, 과잉대응 양상은 행정이 책무의 형평성을 잃음
-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조정, 기간유예, 현지실사단 운영 책임과 권한에서 현장과 정책결정 사이에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가?
- 농가-지방정부(화성시·경기도)-중앙정부의 행정 권한과 책무의 적정 배분과 유기적 관계, 소통과 지도·지원이 적절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 가축방역 선진화 - K방역 국가다운, K가축방역 선진 체계를 만들자

- K방역의 특징은 관련 분야의 행정과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통합적·개방적·민주적 소통체계와 참여로 이루어냄. 인간 생명과 사회전체를 뒤바꿀 정도의 중요성과 긴박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동안 상황과 조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새로운 시도 등을 통해 성과를 이룸
- 반면, 가축방역은 20년 가까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생명과 사회의 근간인 농식품 관련 문제임에도 과거의 행정중심 결정과 권위를 앞세운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행정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가축전염병, 가축생명 팬데믹의 사회적 의제화와 가축방역의 선진화 기회임

○ 가축방역 정책과 행정 선진화 과제

- 가축방역 정책은 축산(구조, 규모, 방식)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 생명산업의 고리임.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과제, 행정과 산업의 변화 필요가 누적되어 개혁할 수 있는 기회 활용
- 제도 개선 방향 :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함. 현행 헌법에서 허용하는 선(동물권 개념 부재)에서 축산 가축에도 ‘동물보호’는 적용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유지와 발전’을 목적으로 삼아 과잉 살처분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함
- 축산 구조·환경 개선, 축산업 허가시 가축전염병 고려, 살처분의 필요 최소화, 보상 문제의 합리적 방향, 지자체 방역협의체와 방역행정 거버넌스 체계 실제화 등 개선 필요
- 건강한 축산이 농업의 온전한 한 축으로 국가적 중요성이 있음을 해당 부처, 관심 주체들이 나서서 사회 의제화하고, 국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며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추진 현황

2021. 4. 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추진 현황

◆ 철새 북상 등으로 AI 발생 위험성은 낮아졌지만 과거 잔존 바이러스로 인해 산발적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

* 특방기간은 종료하였으나, 취약요인에 대한 조치는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유지

□ **[상황 및 전망]** 10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108건(46. 기준)의 고병원성 AI 발생

* 경기(37건)·전남(20)·전북(16)·충북(11)·충남(9)·경북(7)·경남(5)·강원(1)·세종(1)·제주(1)

○ 그간의 소독 및 점검 등 방역강화로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3월 이후 5건 발생(나주2, 충주2, 장흥)(마지막 3.23. 나주 육용오리)

* 일 평균 발생: (1월) 1.3건 → (2월) 0.7건 → (3월) 0.16건 → (4월) 0건

○ 철새의 본격 북상(3월 47만수) 및 항원 검출 급감* 등 발생 위험도는 낮아졌지만 남아있는 철새와 잔존 바이러스로 인해 간헐적인 발생 우려

- 과거 철새 북상 이후에도 산발적 발생이 장기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월별 일평균 항원 검출: (1월) 3.48건 → (2월) 1.96건 → (3.월) 0.35건

□ **[방역대책]**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 철새도래지 항원 검출 지점, 방역취약한 오리·토종닭 농가 등에 대해 집중 소독 및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지속 추진

○ 임상증상이 없는 오리 등을 중심으로 정밀검사 지속 및 환경검사* 강화

* 가금농장(오리·토종닭), 도축장·사료공장·식용란선별포장업(주 1회), 부화장·분뇨·비료업체·전통시장(2주 1회) 환경검사

○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내 차량 출입제한 등 강화된 조치 유지

□ **[향후 계획]** 이번 동절기 동안 추진된 방역조치 중 미흡한 사항과 현장 혼란 등이 없도록 질병관리등급제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 가금 사육농가는 앞으로도 3단계 소독* 및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농장내부 청소·소독, 축사 진입시 장화갈아신고 및 손소독, 축사내부 매일 소독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2021. 4. 7.(수) 14:00

화성시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및 대응

202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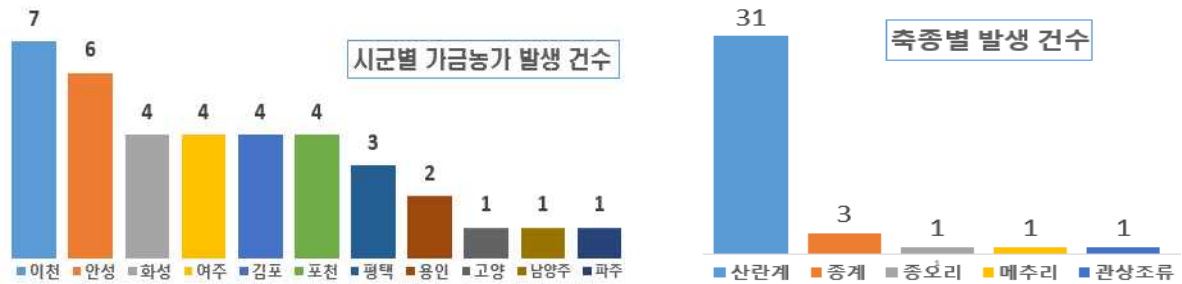
경 기 도

[축 산 산 립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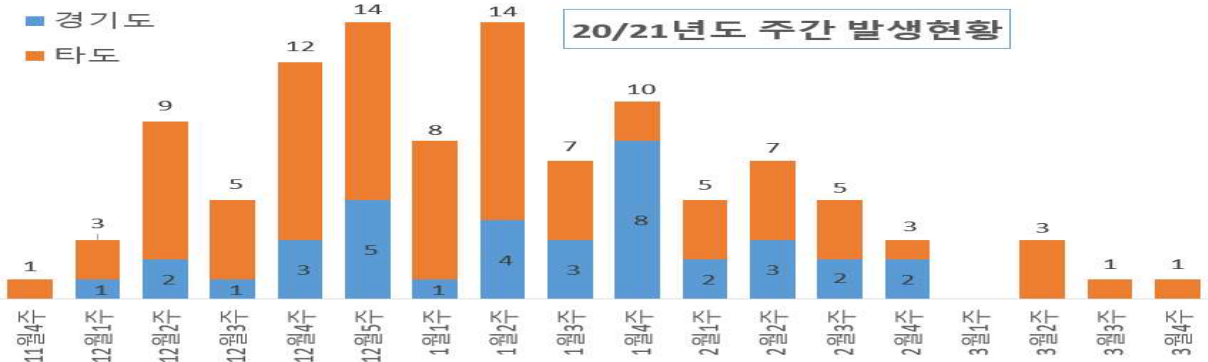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및 대응

◆ 농장발생 : 37건(최초 12.6 여주 / 최종 2.26 포천)

- 살처분 : 165호 14,724천수(발생 37호 5,762천수/예방적 128호 8,962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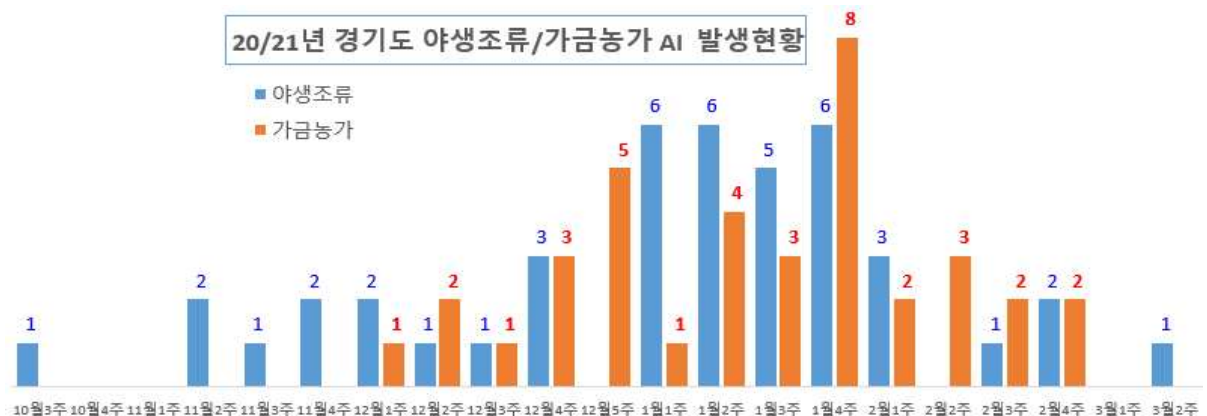


※ 전국 108건 발생, 483호 29,909천수 살처분



◆ 야생조류 : 43건(최초 12.24 용인 / 최종 3.11 평택)

※ 전국 13개 시도 234건 발생(최초 10.21 충남 / 최종 3.30 강원)



⇒ 가금농가는 전반적으로 1월을 정점으로 발생 위험성이 감소하고 있으나, 야생조류는 강원도에서 지속적 항원검출 등 위험요인 발생

I

경기도 현황

① 가금사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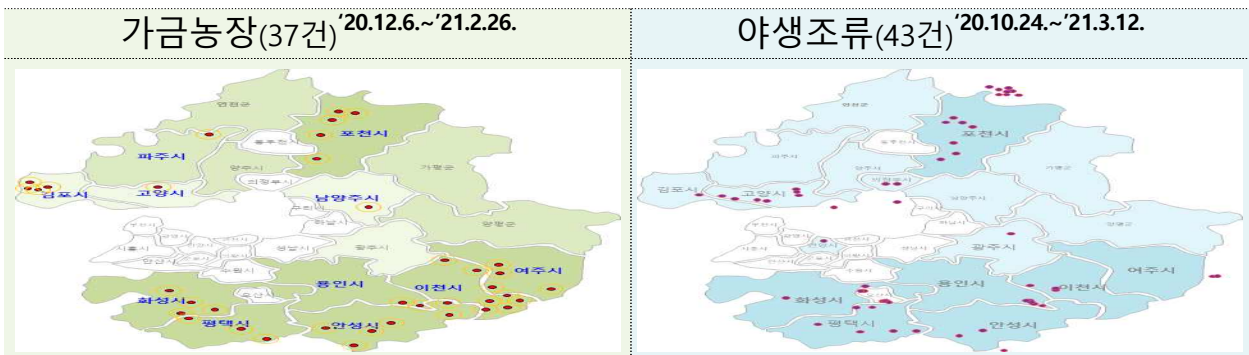
- 경기도는 전국 최대 가금사육 지역(전국 195백만수의 20%)
- 특히, 수도권 계란산업의 중심지로 전국대비 산란계 30%를 사육하고, 일 1,300만개 계란을 생산하며, 대규모 계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생산된 계란의 약 50%를 유통처리
- 산란계 농가규모별 : 214농가 20,806천수

사육규모	계	5만수 이하	10만수 미만	20만수 이하	20만수 이상
농가수	214호 ^{100%}	124호 ^{58%}	38호 ^{18%}	27호 ^{12%}	25호 ^{12%}
수 수	20,806천수 ^{100%}	2,981천수 ^{15%}	3,378천수 ^{16%}	4,622천수 ^{22%}	9,825천수 ^{47%}

② 철새 서식지

- (하천) 도내 전지역에 515개의 하천이 산재해 있어, 농작물 생산 및 야생조수 서식에 유리한 여건으로, 이로인해 운반체와 함께 AI가 빠르게 전파
 - 야생조류 AI 발생 위험지역은 「안성천-북하천」 구간으로 인근에 38번 국도로 연결된 안성·이천·여주·평택 지역에서 반복발생
- (저수지) 전통적인 농업발달로 338개 저수지가 전역에 있고, 한수 이북 지역은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기러기 등 다수의 야생조류 서식
- (들판) 2007년 농지법 개정으로 들판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서 들판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철새에 의해 AI 바이러스의 가금농장내 유입 위험성 상존
 - 위험지역(4개소) : 「김포」, 「화성·평택」, 「안성·이천·여주」, 「포천」
 ⇒ AI 바이러스 오염이 심각할 경우 타 축종에 비해 출입 차량이 많은 대규모 산란계 농가는 발생 위험성 매우 높음

※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의 AI 발생현황(2020~2021)



- 야생철새 분뇨에 AI 바이러스 검출되면, 30일내에 농장 가금류에서 발생

II

발생 상황

초기 발생('03~'12년) : 호남지역 → 중북부지역으로 확산, 철새(주로 가창오리)에 의해 국내유입 후 감염 농가에서 차량 등을 통해 농가간 기계적 전파



최근 발생('13년 이후) : 전국 동시발생, 철새(주로 쇠기러기)에 의해 농가로 바이러스 유입

Ⅰ 과거 발생 양상(전국)

- 【'03~'12】 H5N1형에 감염된 야생오리가 국내로 유입되어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농장으로 바이러스 전파

- 주로 중·남부지역(전남 영암호, 전북 동림저수지)에서 시작되어 철새 북상에 따라 종료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발생기간	'03.12월~'04.3월	'06.11월~'07.3월	'08.4월~'08.5월	'10.12월~'11.5월
발생건수	19건(닭10, 오리9)	7건(닭4, 오리2, 메추리1)	33건(닭21, 오리6, 복합6)	53건(닭18, 오리33, 메추리1, 꿩1)
발생원인	야생오리류	야생오리류	야생오리류	야생오리류
전파양상	충남, 충북, 안성천 (초기 집중발생)	전북 → 경기·충남 (산발적발생)	입추시기 및 소규모농인 수평전파 다발(토종닭)	전남 → 충남·경남·남부 → 경기북부

- 【'13~'16상반기】 H5N8형*에 감염된 중국 야생오리(가창오리)에 의해 전라도 오리를 시작으로 중부권으로 농장간 수평전파와 순환감염으로 지속발생

	'14년	'14/15년		'16년 상반기
발생기간	'14.1월~'14.7월	'14.9월~'15.6월	'15.9월~'15.11월	'16.3월~'16.4월
발생건수	212건(닭43, 오리160, 기타9)	149건(닭32, 오리115, 기타2)	18건(오리13, 기타5)	2건(오리2)
발생원인	중국 야생오리류	중국 야생오리류	재유행	재유행
전파양상	전북 오리 → 충북 → 충남·경기	전남 오리 → 전북·경기·충북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재유행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재유행

* H5N1형에 비해 병원성이 낮으나 오리에서 장기간 바이러스 배출

- 【'16 이후】 기존 H5N8형의 반복 발생 및 새로운 혈청형인 H5N6형*에 감염된 **중국 기러기(쇠기러기)에 중부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동시발생** 하였고, 특히 경기도(중부권)는 산란계 중심으로 집중 발생

	'16/17년		'17/18년	'20/21년
발생기간	'16.11월~'17.3월	'17.6월~'17.6월	'17.11월~'18.3월	'20.11월~'21.3월
발생건수	383건(닭213, 오리161, 메추리7, 관상조2)	36건(닭33, 오리1, 기타2)	22건(닭 7, 오리 15)	108건(닭55, 오리 47, 메추리3, 기타3)
혈 청 형	H5N6형	H5N8형	H5N6형	H5N8형
발생원인	중국 기러기류	야생 오리류	야생 오리류	기러기·오리류(추정)
전파양상	서해안중심 12월 산란계 집중 발생 (11월 전라도 오리)	토종닭 중심 전국발생	전라도 오리중심 → 철새이동에 따라 중부권	전국 동시 산발적 발생 (전라도 오리, 경기도 산란계 집중발생)

* H5N8에 비해 비교적 병원성 높으며 전파력도 높음

② '16/17년과 금년도 발생 비교(경기도)

구 분		'16/17년	'20/21년
발생기간		'16.11.20 ~ '17.6.3. / 15개 시군	'20.12.6 ~ '21.2.26 / 11개 시군
발생건수		124건(닭105, 오리14, 기타5)	37건(닭34, 오리1, 기타1)
살처분수		207농가 15,887천수	165농가 14,724천수
혈 청 형		H5N6형 126건 / H5N8형 1건	H5N8형
전파양상		- 산란계 중심으로 단기간 전체 확산 - 양주(11.20) → 포천(11.22) → 이천·화성(11.25) → 평택·화성(11.28~29) → 양평·여주(12월초) ⇒ 야생철새에 의한 농장 유입과 농장(지역)간 수평전파 발생	- 철새도래 인근 시군에 집단적 발생 - 지역별 집중발생시기: 여주·김포(12월), 화성·평택(12월말, 2월초중), 안성(1월말) 이천·포천(1월말, 2월) ⇒ 야생철새에 의해 농가주변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에서 인근농장내 유입추정
방역·전염·관리	살처분범위	관리지역(500m 이내)	보호지역(3km 이내)
	매몰비용*	미지원	지원
	계란반출	무제한	주2회 반출, 환적장 운영
	사육제한	미실시	위험가축(오리) 실시
살처분속도		느림	빠름
3km내 양성농가수		63건	2건

○ '16/17년 발생 분석에 따른 정책 변화

- ① 산란계 최초 집단발생인 포천시 영북면('16.11.22~12.16, 16농가 발생) 첫 신고때 이미 주변 지역에 넓게 감염이 진행 (계란 운반과정에서 농가간 전파)
⇒ 17년부터 계란운반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 및 GPS 장착 의무화
- ② 대규모 사육농장에 대한 방역 책임차원에서 매몰비를 부담으로 살처분 처리에 상당시간 소요 ⇒ 이후 시군에서 살처분 처리 주도하고 비용은 추후 청구

III

방역 정책 건의

- ◆ 경기도는 '16/17년에 비해 AI 발생이 현격히 줄었으나, 살처분수는 차이 없음
 - 발생/살처분 : ('16/17) 123건/15,885천수 → ('20/21) 37건/14,724천수
 - ⇒ 발생지 3km 내 살처분 정책에 대해 농가단체언론 등에서 사회적 문제 제기
-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은 필요하지만,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살처분 범위는 줄이고, 살처분 외 다양한 방역정책 도입 요구

1 방역 정책의 변화

- 【1단계^{'03~'12}】 국내 초기 발생에 따른 정책 확립시기, 발생 원인인 겨울 철새 대책 관련 제규정 정비, 철새감시·조기신고 체계구축
- 【2단계^{'13~'16}】 오리류 다발 및 상재화 우려에 따라 바이러스 조기 색출을 위한 **상시 검사체계** 중심으로 대책추진, **일시이동중지명령**, **축산차량 등록제(GPS 장착)**, 토종닭·오리 소규모 거래에 대한 규제강화 추진
- 【3단계^{'16 이후}】 신란계 중심의 대규모 발생으로 신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강화, **계란환적장 설치 및 주2회 반출**, **수집판매업 관리** 등을 추진하였고, **오리사육제한**(휴업보상), **살처분 범위 3km 확대** 등 실시('18년 규정 신설)

2 해외 방역사례

구분	방역대 설정 방식	살처분 범위	살처분 제외 평가방법
미국	(감염구역) 반경 3km 이내 (완충구역) 반경 3~10km 이내 (감염구역+완충구역 → 관리지역) (예찰구역) 관리지역 외곽 10km 이상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관리지역 내 접촉 시설도 살처분 가능)	역학조사 결과에 따름
일본	(이동제한구역) 반경 3km 이내 (역학정보에 따라 필요시 확대 가능) (반출제한구역) 반경 3~10km (이동제한구역 확대시 경계에서 10km 이내)	발생농장	발생농장 외 살처분 규정 없음
독일	(보호지역) 최소 반경 3km (예찰지역) 위험평가 결과 필요시 최소 10km	발생농장	발생농장 외 살처분 규정 없음
호주	(제한구역) 1~5km (통제구역) 2~10km (지형 및 시설에 따라 불규칙한 경계)	(감염시설) 저수 살처분 (위험접촉시설) 역학정보에 따라 살처분 실시 가능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한 접촉이 없는 위험접촉시설의 경우

③ 정책 시사점

- (일률적인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에 대한 살처분 실시로 가금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 전체 살처분 중 예방적살처분 비율 61% (경기도 예방적살처분 8,962천수/전체 14,724천수)
 -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웃을 잘못 만나면 살처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 발생에 패턴을 분석하여 발생 차수에 따라 초기에는 강력한 초동 대응이 필요하나, 그 이후에는 살처분 범위 탄력적 조정 필요
- (농가별 특성 미인정) 산란계, 육계, 오리 등 축종별 교차오염 우려가 없어도 방역대 농가에 대한 예외없는 살처분
 - ⇒ 동물복지인증축산농장, 종계장 등 건강한 가축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농가 등에 대한 방역시설 투자의지를 꺾는 역효과 발생 우려
- (시·도 방역건의) 법적기구인 지방방역심의회의 의결결과를 중앙정부에서 미반영
 - 道の 살처분 제외 건의 5건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살처분 지시

④ 대응방안 및 정책건의

- (신규사업) 바이러스 오염구역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철새이동유도사업* 추진
 - * 산란계 농가 주변 철새도래지 제한된 범위내에서 레이저빔 등을 이용하여 철새 이동유도
- (탄력행정) 해외발생·철새위험·농장방역 상황을 반영한 살처분 범위 탄력적 운영
 - ** 해외발생, 철새위험도, 농장방역수준에 따라 살처분 범위 축소
- (제도개선) 살처분 범위를 500m로 축소하고 살처분 확대시 건의토록 관련규정 개정 건의***
 - *** 발생반경 500m내(살처분 의무화)라 할지라도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방역 우수농장'의 경우 시·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유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개정)
- (정책다양화) 방역관리등급제, 백신정책 등 AI 방역대책의 다각화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 가축방역정책 현황 및 과제 모색 간담회시- 화성시 건의, 회의자료

목 록

◆ AI 방역정책에 대한 화성시 의견 및 건의

1. 현황 및 개요	1
2. 3km내 예방살처분 정책의 문제점	2
3. 3km 살처분관련 건의 및 건의배경	2
4. 기타 건의	3
5. 참고 자료	3
농장 위치 및 현황도	5

[산안마을 농장 광범위 예방 살처분 반대 운동 관련] AI 방역정책에 대한 화성시 의견 및 건의

1

현황 및 개요

□ 화성시 가금사육 현황

(단위:호,천수)

계		중 계		산란계		육계(토종)		오리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104	4,582	23	390	20	2,157	60	2,031	1	4

※20~21년 AI 발생으로 21호 196만수 살처분 후 현재 83호 262만수 사육중

□ 산안마을 농장 현황

- 농 가 명 : 야마기시즈실현지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상보)
- 소 재 지 :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04-96
- 사육규모 : 산란계 37천수(평사 18개동), 유정란 생산농장
- 종 사 자 : 24명
- 농장특징 : 동물복지농장 인증(2018), HACCP 인증(2019), 방역선진화 농장(2020)

□ 산안마을 농장 가금 살처분 개요

- 2020.12.22. 산안농장 인근 1.8km 위치한 김○주농장에서 AI 발생
- 조치사항 : 농장내 가금 살처분 및 생산물 폐기 명령(2020.12.23.)
- 명령사유 : 고병원성AI 발생농가의 보호지역내 위치(2020.12.22.)
- 가금살처분 : 2021. 2. 19. 산란계 36,940수 전수 살처분 처리
⇒동물복지농장으로 3km내 예방적살처분 부당성 주장, 살처분 거부 지연
- 산안마을 농장 살처분 명령 거부 사유
 - AI발생 위험도 평가 없이 살처분 명령 및 매일 검사결과 음성판정
 - 방역선진화 농장 조성 및 동물복지축산 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
 - 관리를 외주 위탁없이 농장내 거주직원이 직접 추진관련 위험성 낮음

2

3km내 예방적 살처분의 문제점

- 광범위한(3km내) 예방적 살처분 방역정책으로 지방정부 재정 부실화
 - 다수의 살처분 대상농가 및 막대한 가축 살처분으로 처리비용 부담
 - 살처분 가축과 축산물 폐기 보상금 지방비 소요 부담
 - ※ 화성시 2021년 가금 살처분 처리 소요비용 : 48억원
 - ※ 화성시 2021년 살처분 가축 보상금 소요비용 : 160억원(추정)
 - ▶ 2021년 화성시 축산과 사업예산 : 185억원(국도시비 포함)
- 살처분 범위확대로 가축사체 처리량 증가 및 악취발생 인근 주민 피해
- 방역시설 및 차단방역 우수농가도 일률적 살처분에 의한 박탈감
- 많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 입식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발생
- 대량살처분 가금산물 수급불안으로 가격폭등 물가인상요인 작용
 - 식용란 가격 작년 동기대비 75%이상 인상으로 물가 인상 요인 작용

3

건의 및 배경

- 살처분 범위 축소 하향 조정(3km이내⇒당초 500m이내)
 - 주2회 정기검사로 AI감염 조기발견 신속차단으로 인해 농가간 수평 전파 낮음
 - ▶ 화성시 2021년 AI발생 4건중 3건 예찰검사시 감염 조기확인 및 농가간 전파 없음
- 방역우수 농장 및 깨끗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농장에 대한 선별적 살처분
 - 방역규정을 준수하고 관련지침상 요구하는 방역시설 완비농장 감염성 낮음
 - 케이지 밀집사육 아닌 쾌적한 사육환경하에 인증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살처분 제외
- 시군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한 살처분 범위 축소 권한 부여
 -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 가축방역관(가금공수의,수의직공무원)방역심의회 구성 및 이를 통한 방역정책 결정권 부여
- 공장식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AI 백신 접종 추진
 - 공장식 밀집사육농장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으로 AI감염예방 한계
 - 헛대오르기 등 닭의 자연습성 행위 억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 생명체임을 고려않고 생산비 절감, 수익만을 위해 밀집사육 등 사육환경 열악
 -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뉴질랜드 미국(캘리포니아,미시건) 케이지사육 금지법 시행

- 철새도래지내 및 인근 논밭에 위치한 공장식 대규모 산란계 사육농가 이전
 - 2007년 축사부지를 농지에 가능 농지법개정 이후 들어선 농가에 주로 반복 발생
 - 농지법 개정 이후 논밭 한복판에 대규모 축사난립 등 많은 계사가 축조됨
 - ※ 2021년 화성시 발생 4농가중 4농가 전부 농지법 개정 이후 축조된 농장으로 재발생됨
 - 유럽 일본 등 국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사육농장 산간 오지에 일정간격 유지되게 허가
 - 철새도래지 인근농장은 소독 차단방역으로 AI예방 불가능

4

기타 건의

- 현장방역에 대한 정책 결정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 등 재량권 부여
 - 가축방역심의회 심의조건 충족에도 지방의견 미반영 중앙정부의 일방 결정 지시
 - ※ 경기도방역심의회 및 중앙방역심의회에 살처분 재고건의(4회) 회신부재
- 시장·군수의 권한의 합리화
 - 살처분 명령권은 있으나 불합리하거나 재고 여지에 대한 축소 조정 권한 부여
- 예방적 살처분 농장 및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조속한 교부
 - 지난해 12월 살처분한 농장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금 미지급

5

참고 자료

□ 산안농장 가금 살처분 명령 발부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험도 평가 조사 결과 고위험 농장판정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산안농장 위험도 분석결과 위험도+++로 고위험농장으로 분석(공문 역학조사과-8085호;2020.12.23.)

□ 산안농장 가축방역심의회 미개최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안농장 위험도 분석결과 AI발생 고위험 농장으로 분석 조사되어 즉시 예방적 살처분 명령 조치토록 지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8085호;2020.12.23.)
 ※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파견관이 우리시 상주하며 산안농장 살처분토록 지속 지시
-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안농장 살처분 조치 철저 지시 및 방역대 유지 철저”
 공문 시달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230(2021.1.29.)]

□ 산안농장 경과 및 조치사항

- 2020.12.22. 산안농장 인근 1.8km 위치한 김○주농장에서 AI 발생
- 2020.12.23. 산안농장내 사육중인 가금 전수 살처분 명령(화성시장)
 - 근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9조 ①항 2호 살처분명령대상
- 2020.12.26. 산안농장 살처분명령 이행 거부 통보
 -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으로서 살처분명령 이행을 거부함 공식통보(12.26. 09:58)
- 2020.12.27. 산안농장 [살처분명령 중지 청원서] 화성시에 제출
- 2020.12.28. 청원서에 대한 “살처분명령 즉시 이행” 회신(화성시)
- 2020.12.28. 산안농장에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발부(기한 12.31.)
- 2021. 1. 2.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발부(기한 1. 5.)
- 2021. 1. 2. 경기도에 산안농장 살처분 재고건의 공문 시행
- 2021. 1. 4. 살처분 재고 건의 내용 경기도⇒농식품부에 전달
- 2021. 1.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우리시로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송달
- 2021. 1. 6. 행정대집행 3차 계고서 발부(기한 1. 10.)
- 2021. 1. 7. 살처분 이행촉구차 농장 방문(일자리경제국장,축산과장)
- 2021. 1.11. 행정대집행 4차 계고서 발부(기한 1.17.)
- 2021. 1.13. 산안농장 고발조치(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위반)
- 2021. 1.14. 산안농장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대집행처분취소 행정심판 접수
- 2021. 1.19. 살처분 조치 이행철회 공문 시달(농식품부⇒화성시)
- 2021. 1.20. 살처분 재고 건의 공문(화성시⇒경기도)
- 2021. 1.25. 행정심판 구술심리 참석(동물방역팀장)
- 2021. 1.27. 경기도 축산산립국장 방문(방역대 완화 등 협의차)
- 2021. 1.28. 행정심판 결정서 송부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각, 대집행 계고 집행정지인원]
- 2021. 1.29. 방역대 전환(관리·보호지역→예찰지역) 건의(화성시→경기도)
- 2021. 1.29. 살처분 조치 철회 공문 시달(농식품부→경기도,화성시)
- 2021. 2. 5. 산안농장측 및 동물보호단체와 시장님 면담
- 2021. 2.17. 화성시장 산안농장 관련 성명서 발표
- 2021. 2.18. 산안농장측에서 시청 축산과에 살처분 수용 전달
- 2021. 2.19. 산안농장 산란계 36,940수 전수 살처분 실시
- 2021. 2.22. 산안농장 가금산물 알 128만개 폐기완료

□ 산안농장 위치 및 현황도

양지들 12.22 AI발생

